

2022년 이야기가 있는 코딩...광주중앙도서관

8월 9일부터 12일까지 그림책 코딩 융합 교육

입력 2022-07-18 15:09



광주중앙도서관은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에서 주관하는 '이야기가 있는 코딩' 공모사업에 선정됐다고 18일 밝혔다.

중앙도서관은 이에 따라 오는 8월 9~12일 그림책·코딩 융합 교육프로그램 '2022년 이야기가 있는 코딩'을 운영한다.

해당 프로그램은 초등학교 4~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총 4차에 걸쳐 진행한다.

독서에 대한 초등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하고 사고력을 키우는 능력을 키워준다. 다양한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프로그램은 그림책 읽기, 만들기 활동, 보드 활용 코딩 실습, 시나리오 구성해 코딩으로 표현하기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참여 학생들은 먼저 '너는 괴물?', '내가 보여!', '오염물이 터졌다!', '그레타 툰베리가 외쳐요!' 그림책을 읽은 후, 다양한 공작재료를 만들기 시간을 갖는다.

이어 블록코딩과 교육용 보드를 연결해 코딩을 실습해보고 책 속 내용을 나만의 시나리오로 구성해 코딩으로 표현해 본다.

접수는 오는 20일부터 광주중앙도서관 누리집을 통해 진행한다. 참가 대상과 인원은 초등학교 4~6학년 및 동일 연령 청소년 10명을 모집하며 무료로 운영된다.

추선미 광주중앙도서관장은 "독서와 코딩을 융합한 이번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독서의 즐거움을 발견하고 창의력과 사고력을 키우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



광주중앙도서관, 2022년 이야기가 있는 코딩 운영

입력 2022-07-18 오후 3:15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주관 공모사업 선정



광주중앙도서관 전경. (제공: 광주시교육청) ©천지일보 2022.07.18

[천지일보=이미에 기자] 광주중앙도서관이 오는 8월 9~12일 그림책·코딩 융합 교육프로그램 ‘2022년 이야기가 있는 코딩’을 운영한다.

광주중앙도서관에 따르면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에서 주관하는 ‘이야기가 있는 코딩’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2022년 이야기가 있는 코딩’ 프로그램은 초등학교 4~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총 4차시로 진행된다. 초등학생들에게 독서에 대한 흥미를 자연스럽게 유발하고 사고력을 키우며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프로그램은 ▲그림책 읽기 ▲메이킹 활동 ▲보드 활용 코딩 실습 ▲시나리오 구성해 코딩으로 표현하기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특히 참여 학생들은 각 차시별로 먼저 너는 괴물?, 내가 보여, 오염물이 터졌다, 그레타 툰베리가 외쳐요’ 그림책을 읽은 후, 다양한 공작재료를 메이킹 시간을 갖는다. 이어 블록코딩과 교육용 보드를 연결해 코딩을 실습해보고 책 속 내용을 나만의 시나리오로 구성해 코딩으로 표현해 본다.

접수는 오는 20일부터 광주중앙도서관 누리집을 통해 진행한다. 참가 대상과 인원은 초등학교 4~6학년 및 동일 연령 청소년 10명을 모집하며 무료로 운영된다.

광주중앙도서관 추천미 관장은 “독서와 코딩을 융합한 이번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독서의 즐거움을 발견하고 창의력과 사고력이 신장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도서관은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이용자와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누구나 이용하고 싶은 행복한 도서관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천지일보

#광주중앙도서관

#그림책코딩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블록코딩

#교육용보드

#그림책읽기

저작권자 © 천지일보 - 새 시대 희망언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기사제보지면구독신청



뉴스종합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스포츠

전남뉴스

기획/특집

교육/

광주중앙도서관, '이야기가 있는 코딩' 운영

2022년 07월 18일(월) 18:32

[전남매일=최환준 기자] 광주중앙도서관이 다음달 9~12일 그림책·코딩 융합 교육프로그램 '2022년 이야기가 있는 코딩'을

18일 광주중앙도서관에 따르면 '2022년 이야기가 있는 코딩' 프로그램은 초등학교 4~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총 네 차례

초등학생들에게 독서에 대한 흥미를 자연스럽게 유발하고 사고력을 키우며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

이번 프로그램은 ▲그림책 읽기 ▲메이킹 활동 ▲보드 활용 코딩 실습 ▲시나리오 구성해 코딩으로 표현하기 등의 순서로

특히 참여 학생들은 각 차시별로 먼저 '너는 괴물?', '내가 보여!', '오염물이 터졌다!', '그레타 툰베리가 외쳐요!' 그림책을
재료로 메이킹 시간을 갖는다. 이어 블록코딩과 교육용 보드를 연결해 코딩을 실습해보고 책 속 내용을 나만의 시나리오로
현해 본다.

접수는 오는 20일부터 광주중앙도서관 누리집을 통해 진행한다.

참가 대상과 인원은 초등학교 4~6학년 및 동일 연령 청소년 10명을 모집하며 무료로 운영된다.

광주중앙도서관 추선미 관장은 "독서와 코딩을 융합한 이번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독서의 즐거움을 발견하고 창의력과 사.
가 되길 바란다"며 "도서관은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이용자들과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누구나 이용하고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환준 기자

광주중앙도서관, 여름방학 프로그램 운영

✎ 유세봄 기자 | ☎ 승인 2022.07.18 19:17

독서교실·여름방학특강 선착순 모집
홈페이지 통해 신청



광주중앙도서관 전경.

광주중앙도서관과 분관 최상준도서관이 오는 여름방학을 맞아 초등학생 대상 여름독서교실 및 여름방학특강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18일 광주중앙도서관에 따르면 올 여름방학 프로그램은 ▲여름독서교실(초등학교 3~5학년 대상) ▲여름방학특강(초등학교 1~6학년) ▲이야기가 있는 코딩(초등학교 4~6학년 대상)으로 다채롭게 구성됐으며 홈페이지를 통해 선착순 모집한다.

여름독서교실은 광주중앙도서관에서 8월16~19일 '사랑받는 고전 다시보기'를 주제로, 최상준도서관에서 8월2~5일 '책 읽는 아이-책 제대로 읽기'를 주제로 각 4일 동안 다양한 독후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광주중앙도서관에서 진행하는 여름방학특강은 8월9~12일 ▲세계요리교실 ▲K-POP댄스 ▲웹툰기초 ▲창의과학실험을 주제로, 최상준도서관은 8월9~19일 ▲우리 고장 문화유산 ▲고전에서 만나는 삶의 지혜 ▲미디어를 보면 세상이 보인다! ▲신화가 된 별자리를 주제로 각 4개 강좌를 통해 다양한 인문학적 활동을 모색한다.

한편 여름방학 프로그램의 일환인 '이야기가 있는 코딩'은 그림책 연계 코딩 교육프로그램으로 광주중앙도서관에서 8월9~12일 운영한다. 생생한 동화 속 이야기를 코딩으로 표현해보는 시간을 갖는다.

광주중앙도서관 추선미 관장은 "다양한 여름방학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사회 도서관의 역할을 제고하고 학생들의 활발한 독서활동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유새봄 기자 newbom@gjdream.com



유새봄 기자 newbom@gjdream.com

[교육소식] 광주동·서부교육지원청, 난독증 초등생 치료 지원 등

등록 2022.07.18 15:40:34



[광주=뉴스시스] 광주시교육청. (사진=뉴스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스시스] 류형근 기자 = 광주동·서부교육지원청 학습종합클리닉센터는 초등학교 난독증(읽기두드림) 학생을 대상으로 3년 동안 치료를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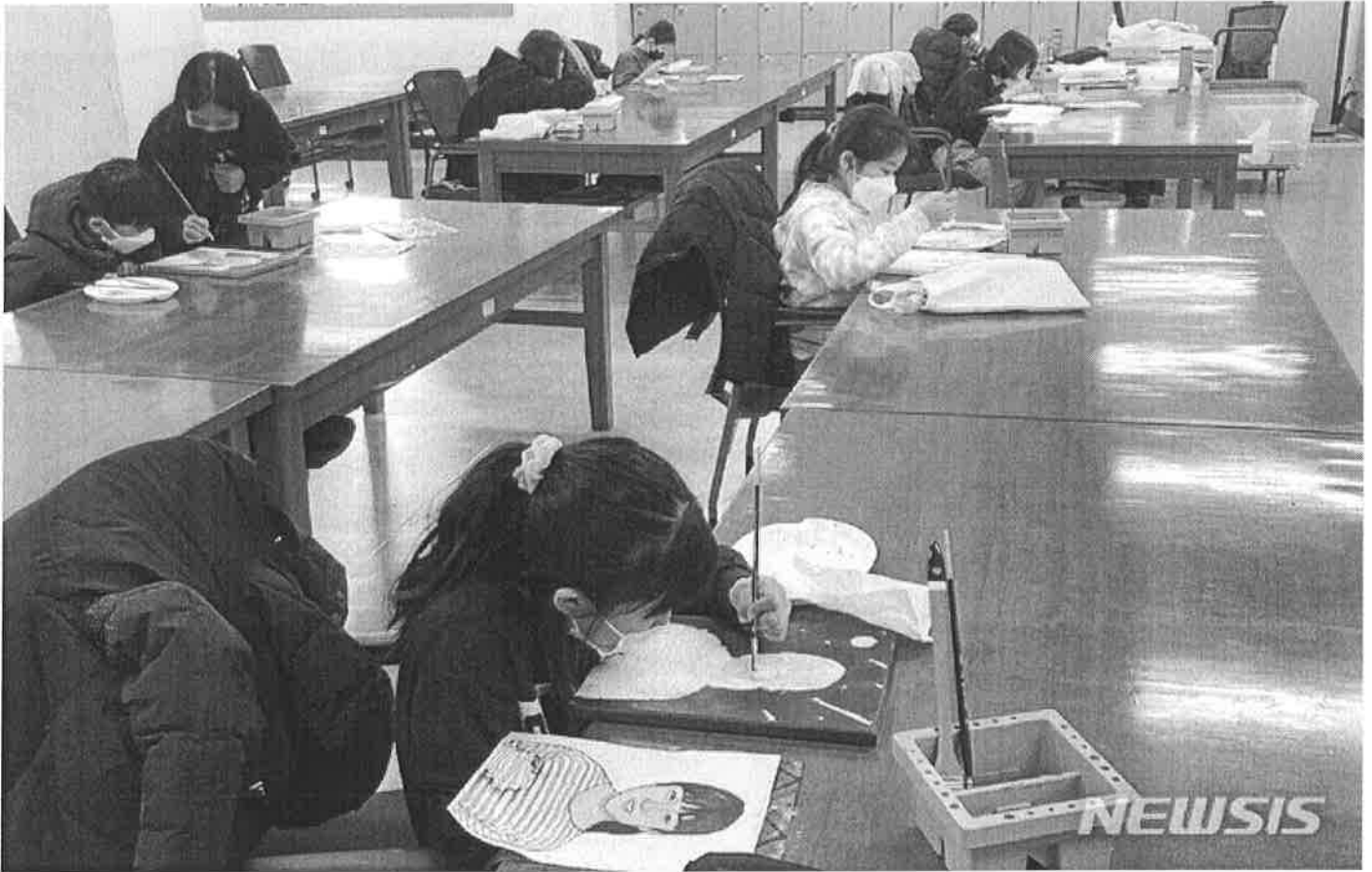
동·서부 학습종합클리닉센터는 난독증 의심 대상 학생 119명을 선정했으며 이날부터 올해 말까지 난독증 치료 인증기관에서 25차례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1회당 4만5000원을 지원한다. 내년에는 50회 지원한다.

또 난독증 학생의 보호자와 담임교사를 대상으로 9~10월 총 4회 연수를 진행할 계획이다. 광주교대 이경호 교수와 일동초 김미란 수석교사가 강사로 나선다.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 여름방학 특별강좌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은 다음달 9일부터 19일까지 방학을 맞은 어린이·청소년을 대상으로 '와글와글 여름방학 특별 강좌'를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강좌는 '기초드론교실' '수학나라 보드게임' '공예교실' '여름도자기교실' '세계문화' '그림동화푸드교실' '초등 경제야 놀자' '그림동화 북플레이' '건축교실' '스마트영상제작' '독후서평 제대로 쓰기' 등 12개로 구성됐다.



[광주=뉴스시스]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은 다음달 9일부터 19일까지 방학을 맞은 어린이·청소년을 대상으로 '와글와글 여름방학 특별 강좌'를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사진=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또 방학 기간 중 초등학생의 독서에 대한 흥미유발을 위해 '수박수영장'(1~3학년)과 '이상한 과자가게 전천당'(4~6학년)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이 밖에도 동화책의 장면을 직접 미니어처로 제작하는 '작은 동화세상' 특강도 진행된다.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 여름방학 프로그램 참가자는 20일부터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광주중앙도서관 '그림책·코딩 융합 프로그램'

광주중앙도서관은 다음달 9일부터 12일까지 그림책·코딩 융합 교육 프로그램 '2022 이야기가 있는 코딩'을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광주=뉴스시스] 광주중앙도서관. (사진=광주중앙도서관 제공·뉴스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프로그램은 초등학교 4~6학년 학생들이 독서에 대한 흥미를 느끼고 사고력을 키울 수 있도록 총 4차 과정으로 진행된다.

'그림책 읽기'를 시작으로 '메이킹 활동' '보드 활용 코딩 실습' '시나리오 구성해 코딩으로 표현하기'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접수는 오는 20일부터 광주중앙도서관 누리집을 통해 진행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hgryu77@newsis.com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